

27. 성령 훼방 죄는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막 3:28~29, 개역성경)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막 3:28~29, 개역개정)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마 12:31-32).

김재욱 형제님의 글: 철없던 청년 때, 지인들과 윗놀이를 하는데 한 팀에서 결정적 순간에 모나 웃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주여~~"를 외쳤습니다. 물론 장난이지요. 그러자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나무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랬다고, 그런 것도 성령을 훼방하는 거라고 말이지요.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 훼방 죄는 용서못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겁이 좀 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믿어도 다 틀린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주여 삼창을 비롯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훼방 죄일까요? 성령 훼방 죄란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훼방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안 좋은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제 생각은 아닌데... 정신병인 것인지... 그게 하나님과도 연결돼서 안 좋은 말이 떠오릅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혹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맘으로라도 욕되게 해서 성령 훼방 죄를 지었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입니다.

“무분별한 은사운동을 퍼뜨리는 인터넷 동영상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지요.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오해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성령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 행해진 일들은 성도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바로잡고 비판하려 하다가도 짹 소리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 죄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훼방 죄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용되던 개역성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 신성 모독, 훼방은 영어로 blasphemy, ‘돌에 맞아 죽는 죄’

방언, 주여 3창, 뒤로 쓰러지는 것(헤블린터치, 입신) 등 불필요, 예언, 다 마귀의 일
이 말씀을 들어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역을 비난하면 성령을 훼방(모독)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두려워 성도들은 감히 반대를 못한다.

또한 교회를 비방하거나 기도를 할 때 방해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들도 영영 용서받지 못한다는 식의 말을 한다.

근거 없이 교회나 목사 비방, 나쁜 일, 그렇다고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앞뒤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한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22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30절).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을 마귀들의 통치자의 일이라고 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지 않는 한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죄이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특히 십자가 사건 뒤로는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진정한 은혜시대이다.

좋지 않은 생각은 기도로 물리치고 회개하면 된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심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행위에 의해 구원 받는다, 성령세례(방언)등 특정한 은사를 확실히 받아야 구원의 증표가 된다... 등등의 교리”

이런 것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 훼방 죄가 아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결론: 성령 훼방 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귀의 통치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와 비슷한 일들을 무분별하게 흉내 내는 목사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했다고 받는 벌이 아니다. 또한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독했다면 회개를 통해 용서받으면 될 것이다. 반드시 영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사역인지 마귀의 사역인지 분별해야 한다. 잘 분별할 때 복음은 더욱 확실해진다.

성령 훼방 죄를 오해하며 마음에 졌던 짐을 벗어 버리기 바란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복음을 값싼 사람의 생각에 묶어두지 말라.